

## "폐지 멈춰"...'홍김동전' 종영에 멤버들 고군분투

등록 2024.01.11 10:02:24



[서울=뉴시스] 11일 오후 8시30분 방송되는 KBS 2TV 예능물 '홍김동전'은 '폐지를 막아라' 특집으로 꾸며진다. (사진=KBS 2TV 제공) 2024.01.11. photo@newsis.com \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이강산 인턴 기자 = '홍김동전' 멤버들이 시청자들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했다.

11일 오후 8시30분 방송되는 KBS 2TV 예능물 '홍김동전'은 '폐지를 막아라' 특집으로 꾸며진다. 멤버들과 시청자 모두 웃으며 종영을 맞이하자는 염원이 담겼다.

'폐지를 막아라'는 KBS 건물에서 펼쳐진다. 각 층에 위치한 자신의 폐지 수거함을 지키고, 상대방의 폐지 수거함에 폐지를 가득 채우면 승리하는 난이도 최하의 게임이다.

조세호는 시작부터 "폐지 멈춰"를 외치며 호연지기를 보여준다. 조세호는 멤버들의 뒤통수 치기를 시작으로 협업과 배신을 오

가며 요주의 인물 1순위에 떠올랐다. '우영 VS 반우영'의 형태로 게임이 진행되자 그룹 '2PM' 멤버 우영은 "누나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. 난 누나한테 안 그랬잖아요"라며 절규했다.

양속 케미를 형성해온 모델 출신 홍진경·주우재는 시작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펼친다. 게임 중 홍진경은 주우재에게 "이 불길한 느낌은 뭐지? 너 굉장히 나쁜 놈"이라며 이를 갈았다.

이에 주우재는 "싸우려고 온 거 아닌데 왜 폐지를 갖고 오냐. 그거 두고 오라"며 간절하게 매달렸다. "내가 핫바지로 보여요? 저런 수를 쓰려고 하다니"라고 분노를 드러내기도 하며 홍진경의 공격에 저항했다.

'홍김동전'은 18일 방송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dlrkdtk34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